

<부록 1>

문항 1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언어]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A-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삶의 태도, 부동심(不動心), 성찰과 반성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에서 나타나는 ‘이인국’의 삶의 방식을 **나**의 ㉠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나**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가**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벌써 육 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웅덩이처럼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물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皇國臣民)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때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해방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친일파 의사 이인국은 해방 후, 우연히 자신을 노려보는 청년과 눈이 마주치고, 그가 입원을 거절당한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방 이후의 사회 변화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던 이인국은 소련군이 입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선,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문을 열어 액자를 꺼낸다.

‘국어 상용의 가(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갔다.

환자도 일본 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 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 총력 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전광용, <꺼삐딴 리>, 『고등학교 국어』

나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즉 ㉠ ‘부동심(不動心)’ 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독서』

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
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흠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뜬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
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
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고등학교 문학』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외부 세계의 위력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 태도, 이른바 ‘부동심’의 자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화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 에도 올바른 신념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은 이번 논술고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나]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8	249	제시문 가	×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120	제시문 나	×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263-264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의 일부에서 발췌한 제시문으로, 여기에서 주인공 ‘이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양심마저 외면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라를 잃은 시대, “모범적인 황국 신민”이라는 칭호를 위해 친일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해방 이후에는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를 지우는 데에만 급급한 이인국의 처세술은, 시류에 영합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인국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라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제시문 (나)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하는 ‘부동심’ 이야말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시류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인국의 모습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이익만을 위해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부동심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부동심’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다. 위력적인 외부 세계의 힘 앞에서, 개인은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이며, 때로는 대의를 따르는 선택이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윤동주의 시 <별헤는 밤>에서 보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은 문제적이다.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의 현실에서, 평범한 개인이 부동심을 지키는 일이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 인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 속의 화자가 밤새도록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우며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라의 ‘이름’을 상실한 시대, 더 이상 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엄혹한 시대라면, 어쩌면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조차, 자신의 쓸모없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부동심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현실 권력의 힘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삶의 방향마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외부의 유혹이나 개인의 욕망, 소시민의 안락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의 동요”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다)의 시적 화자

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가)의 이인국 박사와 대비되는 지점도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땀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가 것처럼 부동심을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시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는 시적 화자의 상징이라면, 이인국은 자기반성 없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대에 영합하는 부동심 없는 인물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는 셈이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나)에서 ‘부동심’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인물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논리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다)가 가진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시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④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가)의 ‘이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조국을 침략한 일본에 복종하였으며, 이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도리보다,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한 궁리가 우선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익만을 쫓는 이인국의 삶의 방식은 (나)의 관점에서 ㉠을 지키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할 수 있다. (나)는 본인의 선한 ‘마음’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인국은 해방 전까지 일제에 충성하며 일본인과의 교제가 ‘떳떳하다’고 했으나, 해방 후 액자 속에 모셔놓았던 ‘국어 상용의 가’와 같은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없애버렸다. 이를 통해 그도 일본과의 교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일본에 바쳤던 충성 또한 해방과 같은 사건에 흔들릴 수 있는 가볍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의 화자는 이인국과 달리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외부의 힘, 즉 일제의 강제에 의해 창씨개명을 하게됐지만,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태도를 통해 비록 자신이 이름을 바꾸었어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다는 부동심을 보여준다. (다)의 화자는 대적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괴로워하면서도 별 하나에 본인의 조국과 가족, 친구, 나아가 비둘기, 강아지와 같은 생명체의 이름까지도 가슴에 새기면서 그의 선한 본성을 잃지 않는다. 이는 의사임에도 환자를 쫓아내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한 이인국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는 삶의 태도이다.

문항 2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사회]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A-2 [사회]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고전과 윤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기회비용, 청렴, 사회실재론, 청탁금지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가**를 근거로 **나**의 ‘청렴’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라**의 ㉠이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 하고, 화폐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자. 갑이 해외여행 경비로 쓰게 되는 돈은 200만 원이다. 이때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시적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에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 포기해야 하는 수입인 암묵적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행을 감으로써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일간 식당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갑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
----------	---

은 총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정약용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렴을 설정하고 있다.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행하는 모든 선과 덕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덕목을 결코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지체와 문벌이 드러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자가 겨우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가서 오랜 기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이런 까닭에 크게 욕심내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민심서』, 율기(律己)편, 청심(淸心)조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집단에서는 개인의 개별 속성과는 구별되는 집단만의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갑, 을, 병의 개별적 속성과는 전혀 별개의 집단만의 어떤 것이 생긴다. 세 사람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힘의 관계가 나타나거나 차등적인 지위 구조가 생겨나거나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거나 또는 서로 좋아하고 끌린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구조가 생성되고, 그것을 변경시키려는 또는 지속시키려는 알력이나 협동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세 사람의 개별적인 속성과는 별개의 집단만의 고유한 것들이 표출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 학교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비리가 문제가 될 때마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여 처음 제안하였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끝에 2016년 9월 28일에 발효되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요소인 기회비용 및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회비용 개념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여 청렴의 필요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실재론을 바탕으로 법규의 필요성을 논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고전과윤리		관련
성취 기준	[12고윤03-02] 공직자의 자세로서 청렴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공직자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목민심서』 - 공직자의 자세로서 청렴과 애민(愛民))	제시문[나]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제시문[다]
4.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윤리		관련
성취 기준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라]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정창우외	미래엔	2018	131	제시문 가	×
고전과윤리	박병기외	전라북도 교육청	2018	125	제시문 나	×
사회문화	신형민외	비상교육	2018	61	제시문 다	×
생활과윤리	변순용외	천재교과서	2018	92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기회비용이 직접적인 명시적 비용과 간접적인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공직자의 덕목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에 대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해 기술한 내용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은 모든 선과 덕의 원천이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덕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점 중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사회 실재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부패 근절을 위한 법규로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제시문 (나)의 청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렴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눈앞의 수백 꾸러미 돈과 같은 재물을 얻는 명시적 비용과 오랜 기간 관직에 쓰이지 못해 잃게 되는 일생의 명예 같은 암묵적 비용을 고려할 때 청렴을 추구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청렴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라)의 청탁 금지법이 (다)의 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보완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라)의 청탁 금지법이 사회적 수준에서 청렴을 추구하는 규범적, 구조적 방법임을 제시문 (다)의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으로 보는 사회실재론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규범이나 제도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나)의 청렴의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제시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청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논리력]
- ② 제시문 (나)의 청렴이 개인적 수준에서 논의됨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라)의 청탁 금지법의 필요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논리력]
- ③ 제시문 (라)의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제시문 (다)의 사회실재론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추론력]
- ④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가)는 기회비용에 가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재화인 ‘명시적 비용’ 과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 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 개념을 근거로 (나)의 ‘청렴해야 하는 이유’ 가 ‘공직자가 청렴을 지켰을 때의 기회비용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보다 적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공직자가 ‘수백 꾸러미의 돈’ 과 같은 탐욕에 빠질 때를 지적했다. 이는 (가)의 개념에서 봤을 때 재화 취득으로 인해 명시적 비용에서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비리가 적발되어 유배와 같은 처벌, 즉 암묵적 비용에서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총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다. 비리로 얻는 이익보다 과문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서 총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는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할 때 집단만의 개별 속성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에 (라)의 ㉠은 집단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공동체의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수호하는 공직자가 뇌물,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다면 ‘국가’ 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구성원들 간 불평등한 위계질서, 차등적 지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집단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집단 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을 이끄는 ㉠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의 균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존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